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 聞

발행인 高長權 주 간 安成澤
편집국장 金貞任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690-756> 제주시 아라돌 1번지
전화: 54-2278-9 / FAX 56-2204
인쇄: 한라일보 사

제573호 <주간> [1954년5월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총장 선거 후보 특집호

1997년 6월 17일 화요일

1

5대 총장후보 일주일 후 탄생 24일 오전 9시반부터 선거실황 교내방송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새장을 힘차게 열어 나갈 우리대학의 제5대 총장이 드디어 오는 24일 교수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교무처 교무과에 마련된 총장임명추천위원회 선거관리총괄 소위원회(위원장 부만근 행정학과 교수)에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고남욱 교수(경제학과), 박행신 교수(과학교육과), 서경림 교수(법학과), 신형철 교수(사회학과), 양우진 교수(영어영문학과), 오현도 교수(농학과), 조문부 교수(행정학과) 등 7명.(이상이나 이하의 순, 각 후보 공약 2~8면 참조)

총장후보자들은 투표일인 오는 24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법정대 중강당에서 유권자 등 우리대학 구성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각 15분동안 한차례씩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소견발표를 하게 된다.

이날 소견 발표는 입후보자 소견발표 진행 소위원회(위원장 이춘기 음악학과 교수)의 주관 아래 소견 발표순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총장임명추천위원회 부만근 위원장의 개회인사와 이춘기 진행소위원회 위원장의 유의사

를 발표에 이어 추천 차례순으로 입후보자 유제가 진행된다.

총장후보자 소견발표장에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에 선거관리 총괄 소위원회가 발급한 입장권을 소지한 우리 대학 학생·직원·기자·학부모·총동창회 인원 등이 입장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직원과 학생들을 위해 교육방송국(CEBS)에서 소견발표 상황을 생방송할 예정이다.

총장후보자 소견발표가 끝난 뒤 부만근 위원장의 투표개시 선언으로 투표가 이어지는데, 이때 각 후보별 1인씩 선정된 입후보자 대리인들은 투표참관인식에서 투표관리 과정을 참관케 된다.

유권자들은 당일 투표시 선거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소속 단과대 추천위원회 위원인 선거권자임을 인정해야 투표할 수 있다.

당선결정은 개표결과 총투표자수(3백49명)의 과반수(1백75표 이상)를 득표한 입후보자가 총장임명후보 선거 당선자로 결정된다.

그러나 입후보자가 7명이나 되므로 1차 투표에서 어느 한 후보가 과반수

를 득표하기가 어려울 것이 예상돼 2차 내지 3차 투표까지 실시될 전망이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3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 1, 2위 득표자를 후보자 재선정하여 3차 투표에 들어간다.

다만 3차 투표에서는 과반수 득표여부에 관계없이 최다 득표자가 우리대학 제5대 총장 당선자(제1순위 총장임명후보자)로 결정된다.

최종 선거 결과가 집계되면 부만근 위원장은 개표장소에서 과반수 득표자(3차 투표인 경우 최다득표자)를 제5대 총장선거 당선자로 공표하며 24시간 이내에 당선공고를 하게 된다.

총장임명추천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유권자는 전임강사 이상 모두 3백49명(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휴직자 및 국외장기 출장자 12명 제외)이며, 이들에 대한 선거인 명부 열람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각 단과대 교무과와 본부 교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총장임명추천위원회에서는 17일부터 제주대학교 홈페이지(주

소:www.cheju.ac.kr)에 각 후보자들의 선거공약들을 홍보할 수 있는 난을 개설했다.

한편 총장임명추천위원회는 각 선거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총장선거 선거에 따른 제반 선거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각 소위원회 교수 및 종사직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 총괄 소위원회(위원장 부만근 행정학과 교수) △위원=현공남(농업경제학과 교수), 양방주(국민윤리교육과 부교수), 양경주(영어영문학과 교수), 강근형(정치외교학과 교수), 고필수(경제학과 부교수), 김영춘(상업교육과 교수), 김규일(동물자원과학과 교수), 이준백(해양학과 부교수), 김철수(전산통계학과 부교수), 현영진(화학공학과 부교수) △종사직원=김남식(서기관), 홍인기(교육행정주사), 고정효(교육행정주사보), 조설아(조교)

▲입후보자 소견 발표 진행 소위원회(위원장 이춘기 음악학과 교수) △위원=강상규(환경공학과 부교수), 허중환(기계공학과 교수), 오성보(전기공학과 부교수) △종사직원=이창기(교육행정주사보), 김수진(교육행정주

사보), 문영필(사무원)

▲투표관리 소위원회(위원장 유철인 사회학과 교수) △위원=허철수(교직과 교수), 허철구(환경공학과 부교수), 김세재(생물학과 부교수), 김덕수(화학과 부교수) △종사직원=강성진(교육행정주사) 고택성(교육행정주사보), 강영석(교육행정서기)

▲개표관리 소위원회(위원장 문원석 무역학과 교수) △위원=송성희(독어독문학과 교수), 김종훈(영어교육과 교수), 송창길(농학과 부교수), 고정대(물리학과 부교수) △종사직원=김현근(교육행정주사), 이수인(교육행정주사보), 홍선기(사무원)

▲검표 소위원회(위원장 고재건 경영학과 교수) △위원=강동원(미술학과 교수), 김수길(법학과 교수), 고정삼(농학과 교수), 김장형(정보공학과 교수) △종사직원=김근영(기계원), 고원복(교육행정주사보), 이채일(교육행정주사보)

▲투표장 정리위원: 방창원(서기관), 박승석(교육행정주사), 강상현(교육연구사), 김병찬(교육연구사), 최진호(조교), 김문규(교육행정주사보), 부영진(기관원), 현우남(사무원), 김선태(사무원), 김태웅(사무원)

社說

위대한 제주대학을 꿈꾸자

- 총장선거에 부쳐 -

우리대학은 오는 24일 제5대 총장 선거를 실시한다. 일곱 명의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치뤄지는 이번 선거는 그 열기 못지않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 번째의 직선이 될 이번 선거는 20세기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여는 총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차기 총장에게는 그 어느 때 못지 않게 무거운 임무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임무란 한 마디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와 정보화 시대에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쌓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는 이 시대의 모든 대학들에게 숙명처럼 주어져 있는 터이지만, 그 실현 정도와 성과 여부에 따라 우리대학의 전도와 미래의 위상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차기 총장은 현 고장권 총장의 뒤를 이어, 선배들이 이룩한 업적과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일과 창조적 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게 된다. 그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지속해온 대학의 부조리한 제도 및 행정개혁에 속도를 붙이면서, 제주도민의 숙원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발전기금의 획기적인 모금, 그리고 대학의 질적 도약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

선택의 주사위는 유권자인 360여명의 교수들에게 주어져 있다. 후보자들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내걸고 마지막 득표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연 어느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교수들이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막중한 권리이다. 문제는 후보들의 인품과 추진력, 비전, 직무수행능력 등을 공약과 결부시켜 꿈이 따르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막연하게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을 내세워 출사거를 하는 통속적인 선택은 지양해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선거 전에 몇 차례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후보들의 공약사항을 철저히 따져 묻고 그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토론화가 불가능하게 되어 유감스럽지만, 검증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대학의 총장 직무는 타대학의 총장보다 훨씬 힘에 겨운 게 사실이다. 지리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지방대학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타대학에 비해 아직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극복하고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탁월한 정치력과 지도력 및 헌신적이고 추진력 있는 직무수행능력 등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따라서 차기 총장은 우리 제주대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인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대학을 21세기형 선진대학으로 과감히 개혁할 수 있는 역량있는 분이 선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러하여 다가오는 6월 24일의 선택이 우리 제주대학교의 위대한 미래를 약속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원한다. 45년의 학문적 전통을 뿌리로 하여 우리대학을 특색있는 대학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총장, 대학 구성원들의 애교심을 하나로 묶고 면학분위기를 획기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총장, 우리 제주대학에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총장. 우리는 지금 그런 총장을 갈망한다.

총장 후보자 공개토론회 무산

시기 및 패널 선정문제 등으로

평의원회(의장 김수현 식품공학과 교수)는 제5대 총장후보자 선출선거와 관련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평의원회들의 의견이 엇갈려 공청회 개최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평의원회의 결과에 의하면 공개토론회는 열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평의원회 교무·학생 본과 위원회에서 총·학장 선출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을 만들어 학교당국에 제출기로 했다.

또 선거 직전에 구성된 총장임명추천위원회도 공개토론회 개최여부와 관련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간 제약, 패널 선정, 토론방법 등 선결해야 할 난제들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시행세칙에 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림

2면에서 8면까지 실린 총장선거 입후보자들의 소견서는 지난 6월 5일 공포된 '제주대학교 총장임명후보 선출시행세칙' 제8조에 의거한 것으로 총장임명추천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원고내용이며, 주요 공약사항은 본사에서 각 후보자에게 개별적으로 청탁해 받은 원고입니다.

특히 본사는 각 후보자들의 소견서와 주요공약을 게재함에 있어 지면배치, 배정 등은 총장임명추천위원회 결정에 따랐고 그외의 편집형식 전반에 관해서는 각 후보자측 대리인들간의 사전협의에 의해 편집되었기 때문에 본사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 독자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사정과 기밀고사 관계로 인해 이번 학기 중앙신문 발행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필자들에게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47호는 기밀고사 이후, 제대신문 창간 43주년 특집기획물과 백목문화상 시상식 등을 모아 발간할 예정입니다.

제대신문사

◇ 제5대 총장후보들의 정책

후보자	행정·인사	교수·연구	교육	시설·교육환경	기타
오현도	- 교수채용시 학과 의견존중 - 예산편성 기획실로 이관 - 대학자재평가제 실시 - 행정의 지속성·창의성 제고	- 교수 연구년제 제도화 - 교수의 장·단기 해외 연수 기회 확대 - 교육문화관(국제회관) 신설 - 공동실험실습관의 활성화	- 외국어교육관·전산소 활성화 - 각 학과별 시청각 교육시설 확충 - 우수학생 유치제도 개선 - 졸업생 리플렛 실시	- 부속병원 위치 재검토 - 외국인 학생 기숙사 신축 - 연구실 및 실험실 공간확보 위한 강의동 신축 - 폐적한 야외학습장 시설	- 발전기금 1백억원 조성 목표 - 국고지원 확대 진력 - 제주대학 발전위원회 구성 - 지역사회와 유대 강화
박행신	- 교수채용 및 보직 인선에 투명성 확보 - 객관성 있는 행·재정 운영 - 미래 위한 대학 운영	- 교수 안식년제 실시 - 교직원 처우 개선 - 교수에게 도서관비 할당	- 멀티미디어 원격 교육시스템 설치 - 각 단과·학과별 특성화 추진 - 전공도서 구입제도 개선	- 부속병원 위치 재검토 - 비상용 자가 발전 시설 완비 24시간 도서관 개방 - 조경코스 설치	- 평의원회 활성화 - 의견수렴 창구 다양화 - 총장후보 선출 규정 재정비
고남욱	- 책임과 권한 단과대학으로 이양 - 교수 발전제도 도입 - 행정체제에 리엔지니어링 기법 도입 - 직원인사제도 개혁	- 책임시수 하향 조정 - 교수연구년제 실시 - 교수해외파견제도 대폭 개선	- 최소전공 인정 학점 35~50학점 내에서 자율 결정 - 졸업생 사후관리제도 도입 - 학과내 특성화 분야 발굴·육성	- 영상 교육매체 제작실 설치 - 종합레크레이션 센터 설립 - 컴퓨터 네트워크 추진 - 국제 원격화상수업 제제 완비	- 예산 10%절약 투자재원으로 활용 - 발전기금 1백억 모금 - 제주대학교를 지역정보센터로 육성 - 부속병원 위치 재검토
양우진	- 비합리적 제도·규제 대폭 정비 - 구조적 병폐인 관료주의 체제를 학과·교수 중심체제로 전환 - 각 학과별운영기금 1억원 지원	- 교수 연구년제 실시 - 저서 발간비 지원 - 교수의 신분 보장과 경제적 안정에 최선	- 기초과학분야 육성 및 의과대학과 연계 - 외국과 학생교류방안 수립·추진 - 교육전문 연구기관 신설 - 각종 학술회의의 참가·유치 경비 지원	- 종합학술 정보망 체계 구축 - 레저스포츠 센터 및 사이언스 파크 건설 - 국제교류센터 설립 - 의과대학 예산문제 정당 공약에 반영	- 발전기금 1백억 조성 - 등록금 한한 내대기 운동 전개 - 행정·경영예산 예산 절감
신형철	- 인사위원회 합리적 운영 - 본부 권한 단과 학과로 이관 - 교수제안제도 채택 - 전자우편시스템 활성화	- 교수책임시수 하향 조정 - 연구교수제 도입	- 테마중심으로 특성화 발전프로그램 수립 및 지원 - 외국과 학생교류 프로그램 개발	- 시청각 교재 제작 지원 - 도서관·전산실 운영 체계 개혁 - 대의 협력센터 설치 운영	- 제대발전기금단 구성 - 산·관·학·민 협동 협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발전기금 획기적으로 모금
서경림	- 불필요한 학사규제 전면폐지 - 방문행정 서비스 등, 서비스 행정의 구현 - 교육·연구 중시한 예산 편성 - 학과 중심의 교수공제	- 교수 책임시수 하향 조정 - 강의시수 12시간 상한제 도입 - 교수 연구년제 도입 - 전공분야 성격에 따른 교수업적 평가기준 다원화	- 연구·교육지원시설 및 인력 보강 - 특성화 부분 지원·신규개발 - 교육특성화 개념 도입·인간미 있고 변화 적응력 뛰어난 학생 양성 등	- 교육·연구·도서관·예산·행정 관련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 멀티미디어 교육 시설 확충 - 컴퓨터 공문화사업 추진 - 각종 문화 복지 센터 건립	-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정례 실시 - 총장과 각학과의 간담회 정례화 - 대학병원 문제 해결 노력 - 취임 지역확장제 도입 추진
조문부	- 학과 중심의 공채원칙 확립 - 대학경영본부중심에서 학과·교수 중심으로 전환 - 기관·부서별 책임 경영제 도입	- 안식년제 연차적 실시 - 강의시수 하향 조정 - 교수 승진·재임용 제도 개선(교원의 탄탄한 보호) - 연구의 활성화·세계화	- 봉사활동·인턴제등 의한 학점 인정제 실시 - 학문의 특수 - 경쟁력 갖춘 인재 육성방안 마련 - 대학원 체계적으로 육성	- 교수아파트 증·개축 - 학과별 산학·협동체제 확립 - 의대문제 중지 모아 해결 - 대학의 정보망 체계 확충	- 제주지역사회발전 협의회 구성 - 관공비·행정관리비 대폭 감축 - 각 학과별 대학발전계획 수립 추진 지원 - 사회교육원 설치

<개제순서: 총장임명추천위원회 추천 결정순>

조용하면서 꾸준한 개혁

소견서

지금 지구촌은 전문화·정보화·세계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고도의 지식과 첨단기술의 개발은 앞날의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대 변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 간에는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인지가 개발되고 사회가 변천하면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규범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육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금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웅비의 꿈을 실현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 구성원 모두는 참된 이상과 뚜렷한 비전을 갖고 대학발전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꾸준한 개혁, 큰 것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대열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이번엔 여러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 대열에 앞장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열린 교육", "열린 연구", "투명행정"을 기치로 하여 모교를 위한 마지막 봉사로 알고 필생의 각오와 노력으로 신명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공약사항

I. 재정분야

- 1) 일반회계 : 대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총력 경주
- 2) 기성회계 : 교수 및 학생 후생복지에 우선 지원
- 3) 발전기금
 - ① 국내외 후원을 재 구축하여 발전기금 모금의 획기적 전략 강구
 - ② 의과대학 후원회 별도구성

II. 인사·행정분야

- 1) 교수채용시 학과 교수간의 존중
- 2) 대학 자체평가제 실시
- 3) 예산편성 업무의 기획연구실 이관
- 4) 행정의 지속성·청의성 제고

III. 교육분야

- 1) 교육환경 개선에 최우선 : 각 학과에 시청각교육 시설
- 2) 외국어 교육관의 활성화(내실화)
 - ① 외국인교수의 채용확대
 - ② 시청각시설 지속적 확충
 - ③ 인원충원
- 3) 졸업생의 리플렛 실시
- 4) 전자계산소의 활성화
 - ① 독립건물의 조기 완공
 - ② 시대에 부응하는 전산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오 현 도
농학과 교수

- 5)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외국어 교육·컴퓨터 교육강화
- 6) 제 2도서관 조기완공
- 7) 패적한 야외학습장 시설

IV. 교수 및 연구분야

- 1) 교수의 연구년제(안식년제)제도화
- 2) 교수의 연구기회 확대 : 장·단기 해외연구기회 확대(발전기금, 연구기금)
- 3) 전국단위 학술회의 개최 지원금 확대
- 4) 전국규모 이상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발표시 격려금 지급
- 5) 출판부의 활성화와 교수들의 연구물 출판 지원
- 6) 연구기반 조성에 최우선 : 공동실험실습관의 활성화
 - ① 공동기자재구입(기자재구입비 일일비율)
 - ② 공동실험실습관 전문인력 배치
 - ③ 제주지역 분석연구센터 기능
- 7) 연구실 및 실험실 공간 확보(강의동 신설)
 - ① 교육문화관(국제회관기능) 신설
 - ② 특성화 분야의 추가지정 강화 : 도서관, 화, 청정에너지, 정보통신
- 8) 연구소의 활성화와 내실운영
 - ① 법정연구소 조교배치
 - ② 연구용역비 지원확대
- 11) 자가발전 시설

V. 교수복지분야

- 1) 연 2회 지급하는 기성회계 성과급 2배로 상향 조정
- 2) 재직중 사망 또는 중환인 경우 보조금 지급
- 3) 대학진료소의 운영
- 4) 종합체육센터 설립 추진
- 5) 인문·사회계 교수 연구비 확대 지급(발전기금, 연구기금)

VI. 대학발전분야

- 1) 21세기에 적용될 제 2차 대학장기발전 계획 수립
- 2) 제주대학교 발전위원회 구성(학내외 인사 망라)
- 3) 대외협력
 - ① 제주도와 원만한 관계 유지
 - ② 의과대학 부속병원 위치의 재검토
 - ③ 사회개발교육원(가칭) 설립
- 4)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 5) 수의과대학, 예술대학, 생활과학대학의 조기설립
- 6) 졸업생 취업지도 업무 강화
- 7) 학생의 후생복지 시설 확충
- 8) 외국인 학생 전용회관 설립
- 9)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 ① 문헌검색의 전산화 지속적 지원
 - ② 향토자료실 내실화
- 10) Internet Home Page를 이용한 대학홍보 확대
 - 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 ② 외국인 학생기숙사 신축
 - ③ 체육시설의 보완 등
- 11) 대학간의 균형발전 도모
- 12) 개교 50주년(2002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 다채로운 행사계획

위에서 저의 공약사항을 간략하게 밝혔습니다. 공약사항을 수행하는데 전력투구 할 것을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에게 약속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농학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농학박사
일본 경도대학 농학부 객원 연구원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장
제주학회 회장
제주도 농정협의회 위원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연구소장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 전문위원
충무처 기술고등고시 출제위원

◆ 저서

공예작물학(공저), 향문사, 1976
열대과수학(공저), 상지문화사, 1985
열대의 환경과 농업(공저), 선진문화사, 1996
재배식물의 기원과 전파(단독),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6
삼국 공예작물학(공저), 향문사, 1997

주요공약

대학운영의 민주화·내실화

교육 및 연구환경의 개선

외국의 선진대학은 자유·평등·우애·민주주의적 시민정신이 대학이념으로 정착되면서 대학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높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는 대학이 바라는 최고의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홍익인간의 이념이래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사회로의 변천과 더불어 대학교육은 대중화와 전문직업화 경향으로 본래의 건학이념이나 교육목표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문의 자유가 누러지는 곳입니다. 진리를 연구·교수하는 장입니다. 또한 대학은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여 시대적 命題를 창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대학교는 개교 이후 반세기를 내다보면서 그 동안 학문의 발전, 문화의 진흥, 인간구원의 참된 역할을 과연 얼마나 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성의 최고전당이라는 이름이래 오만하거나 안주한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제주대학교는 제대인 모두가 대학에 대한 짙은 애정을 갖고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야 합니다. 시대적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해 나가면서 『제대정신』 발양에 힘찬 가치를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저는 감히 이러한 열망을 절대절망의 과제로 알고, 우선 다음과 같은 일들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학발전기금 확보

우리대학교 발전기금확보의 성패는 대학의 학사운영, 교수연구 및 복지, 교육환경 개선 등 세계속의 대학으로 진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발전기금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국내·외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기금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대학동문, 제주지역관련 기업인, 재일동포 및 국내·외 독자가 등을 중심으로 임기내에 발전기금 100억원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발전기금 후원회내에 의과대학발전위원회를 별도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조기 설립 등 의과대학 자체운영능력을 양당겨서 재정의 분할로 인한 일반학과와 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관의 활성화(내실화)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어교육관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여 외국어교육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외국거주 한국인 2세들을 위한 한국어 학당을 병설하여 해외동포들과의 유대강화에도 진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교수의 채용확충, 시청각 시설의 확대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에 주력하고 또한 졸업생에 대한 리플렛을 실시하여 우리 졸업생들의 신뢰와 자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자계산소의 활성화 및 전자통신연구의 내실화

전자계산소에 초고속 ATM망 시설을 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산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은 물론 행정과 연구의 전산화 및 전산교육을 내실화 하고, 전자통신연구소를 신설하여 제주도에 저공해산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산소 독립건물을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기반 조성에 최우선

공동실험실습관의 활성화를 위해 기자재구입비 중 10%이상을 우선 배정하여 고가의 기자재를 구입토록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제주지역 분석연구 센터 기능을 수행하며 분석실험의 의뢰만으로 정밀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기별로 전문화시켜 명실공히 지역 연구 센터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연구실 및 실험실 공간 확보

강의동을 새로 신축하여 자연계 대학들의 연구실과 실험실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현재 각 대학건물에 있는 강의실을 강의동 건물로 합치고, 각 대학에 소속된 강의실들을 교수의 연구실, 실험실, 작업실로 전환하여 연구 및 교육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교육문화관(국제회관) 신설

교육문화관(국제회관)을 신설하여 외국어 교육관과 연계하여 국제교류 및 국내·외 학

술회의 개최가 가능한 회의시설을 갖춰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연구에 필요한 영상매체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단과 대학 신설

수의과대학, 예술대학, 생활과학대학의 조기 인가를 추진하여 학문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수학생 유치 및 졸업생 취업 강화

우수학생유치를 위하여 일반 입학전형에 앞서 일정비를 특별전형제를 도입하고, 우수학생이 국내·외 대학원진학 시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수요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기 플랜으로 선진대학으로의 위상정립과 우리대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대로 도내 우수학생은 물론 도외 우수학생까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졸업생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취업도우교과과의 이수기회 확대와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취업센터 운영에서 취업정보 수집, 홍보는 물론 취업알선의 기능도 부여하고 대기업 또는 임시동문의 설명회 수시개회, 대학간 균형채용 제도화를 요청하고, 도내 진출 지사업체에 대한 지역대학 출신의 특재를 의무화하는 등 졸업생의 취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유대 강화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제주대학교와 제주도가 공존공영관계임을 인식하고 대학은 제주도 행정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연구·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제주도는 제주대학교의 제반 발전에 협조하는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깊이 있는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설치 위치를 재검토하여 부속병원이 혹자 경제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대학 예산지원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대학이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호흡을 함께 하면서 견인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결기능, 선도기능을 수행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제충추위 공고 제2호

제주대학교총장임명추천에관한규정 및 제주대학교총장임명후보선출시행세칙에 의하여 제5대 총장임명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입후보자

소속(대학, 학과)	직명	성명	생년월일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	신행철	1940. 1. 3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서경림	1941. 11. 15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교수	박행신	1936. 1. 15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고남욱	1938. 3. 20
농과대학 농학과	교수	오현도	1937. 3. 6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양우진	1939. 2. 4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조문부	1935. 12. 13

2. 선거방법 : 우리대학교 전임교수에 의한 직접비밀투표
3. 입후보자 소견발표 일시 : 1997년 6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4. 입후보자 소견발표 및 투·개표장소 : 법정대학 중강당

공고

5. 투표시간

- 1차투표는 입후보자 소견발표 직후에 실시함.
- 2차투표나 3차투표는 선거당일 본위원회 위원장의 투표개시 선언후 실시함.
- 투표의 마감은 위원장이 장내에 입장해 있는 선거인이 투표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예고를 하고 10분 후 종료선언에 의한.

6. 투표시 선거인 지참물 : 선거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 및 인장

7.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 1997. 6. 14(토) - 1997. 6. 17(화)

- 각 단과대학 행정실(단과대학 소속 전임교수), 교무처 교무과(본부 소속 전임교수)
- 열람기간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선거인 명부에 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8. 기타 : 개별 투표통지는 생략함

1997. 6. 13

제주대학교총장임명추천위원회

우리 대학은 달라져야 합니다

소견서

1. 학력

-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생물학과 졸
- 경희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동물학 전공(이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동물학 전공(이학박사)

2. 경력

- 제주대학교 교수
- 제주대학 과학교육과장
- 제주대학 학생과장
- 제주대학교 과학교육연구 소장
- 일본아미시나조류연구소 객원연구원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장
- 제주대학교 기획위원회 위원
- 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장
- 제주대학교 교수협의회장

3. 학회활동

- 한국 생물교육학회 이사
- 영국 ICBP(국제조류보호연맹)한국 본 부장
- 한국 동물환경학회 이사
- 한국 조류학회 회장

4. 사회활동

- 제주도지방문화재 위원
- 자연보호중앙협의회 학술위원
- 제주도지 편찬위원
- 한라일보 논설위원
- 제주도 교육위원회 위원
-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용역단장
-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자문위원
- 제주도 환경보전지문위원회 부위원장

5. 저서 및 논문

- 한국의 영산-한라산의 동물(제주도, 1994)
- 일반생물학실험(공저)(아카데미서적, 1994)
- 제주의 자연생태계(타라인, 1994)
- 漢城山(山林鳥類의 群集에 關한 研究
- 낙엽활엽수림에서 조류의 체에 따른 생태적 지위에 관한 분석적 연구의 53편

6. 수상경력

- 내무부 장관 표창(1980)
- 제주문화방송사장 감사패(1980)
- 교육부장관상(1993, 1997)
- 한국교육회장상(1997)

7. 소견서

머지않아 다가올 21세기를 맞이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냉정한 판단력과 사고력을 가지고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앞맞는 변화와 개혁에 매진하여



박 행 신
과학교육과 교수

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대학도 불혹의 나이를 넘겨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는 다른 대학들과는 차별적으로 교육의 변혁과 제도의 혁신, 각 학부나 대학의 특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대학의 양상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지리적으로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어서 국내외의 어느 대학보다도 많은 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우리 손으로 발굴, 개발함으로써 세계적인 대학 대열에 합류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지역특성의 발굴과 개발은 대학이 사회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함은 물론 대학경영자는 이에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교육은 지금과는 많은 부분에서 그 양상이 달라지리라 봅니다. 일례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그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며 첨단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위성교육 네트워크에 의한 교육형태도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대 상황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의 시설, 운영, 재정 및 학사행정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위에 다음세대를 바라보는 대학발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로서 뚜렷한 자질과 특성을 지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평생시 원만한 대학 행정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총장으로서의 자질과 개인적인 특성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자질로서는 지도력과 비전, 예리한 지성, 효율적인 관리능력, 전략적 기획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 재정에 관한 통찰력, 협력적인 의사 결정 기술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성숙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과 책임감, 강인한 정신력과 사려 깊은 태도, 원칙을 존중하는 자세, 긍정적이고 활력 있는 자세, 효율적이고 실효력 있는 의사 전달 능력, 정치적으로 넓은 견문과 외교적인 역량 등을 갖추었을 때 참다운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자질과 특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람되게도 그 중 얼마만큼의 자질과 특성들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심부름 할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21세기를 향한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공약사항

운영부분

- 의견수렴 창구의 다양화
- 객관성 있는 행·재정운영
- 미래를 위한 대학의 운영
- 발전기금 조성에 총력
- 대의기구로서 평의원의 활성화
- 총장선출규정 재정비

복지부분

-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시설 확보
- 근로자에 교직원 자녀의 채용개선
- 교수 신분의 부당한 대우 근절
-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한 안식년제 실시
- 교직원 친목단체의 지원

연구부분

- 전공서적의 구입제도 개선
- 24시간 도서관 개방
- 연구소의 연구지원

홍보부분

- 열린 사회교육장 개설
- 우수학생 확보를 위한 대학 홍보 강화

학술·교육부분

- 교수의 저술활동을 위한 출판부 지원
- 국가고시 준비생 적극지원
-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 자매결연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 완성
- 지역 특성화 대학의 확대 및 지원

기반 시설

- 의대부속병원의 설립추진
- 정전대비 및 자가 발전기시설 완비
- 경관과 편의성에 의한 시설물 설치

주요공약

각종 제도·교육환경 개선, 제2 도약기반 창출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대내적으로는 교육 제정의 확보문제, 대외적으로는 교육 개방으로 인한 외국 대학(교)의 국내 분교 설립 등 안과 밖에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개혁 등 몇가지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국내의 모든 대학들도 이런 문제들을 예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현재 개방화·정보화 시대에 각 대학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밖에 없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역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수님들 모두가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의 길 위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 왔으며 나름대로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학교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학교가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자와 피교육자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 제도 변화에 대한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 등 많은 요소들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대학간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하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대학교 이제 반세기를 넘겨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맞는 현시점에서 우리 대학교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를 위한 준비와 성취를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대학운영과 교수복지 문제

대학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대학 발전에 모든 힘을 합치려던 상호간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견수렴의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대학경영자와 교수, 직원, 학생 등과의 대화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겸손히 받아들이도록 할 것입니다.

교수들이 제대가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연구, 교수 및 모든 행정적 업무에 안심하고 임할 수 있도록 국내 국립대학의 상임주위에 이르도록 처우를 개선해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간의 친목과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캠퍼스 내

에 조깅코스 설치 등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여가 선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 신규공채 및 대학내 보직인사에 대한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하므로써 누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와 행정직간에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모든 학내업무가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수들의 사기와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에 일정기간 근무하신 분들에게 안식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더욱이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구성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외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을수 있다」

그들 가족에게 일정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재임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할 것이며 대학내의 규정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발전기금의 확충입니다. 발전기금은 본 도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 그리고 국내외의 동문과 기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우리대학 발전에 공 세주도의 발전이라고 등가적 가치성을 주시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 모금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대학

모든 구성원들의 연구에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도서확보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다양한 전공분야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학은 전공별 도서 구입에 애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도서구입을 위해서는 모든 교수들에게 일정 비율의 도서 구입비를 할당하여 교수들의 국내외 출장 또는 연수시 각자 전공에 따라 도서를 구입하여 도서관에 신고하면 소정액의 금액을 환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학과 또는 학부에는 각 전공별 잡지를 구입하여 학과 또는 학부 내에 일정기간 비치함으로써 교수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에 편의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교수들의 연구와 저술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저서를 출판할 수 있도록 출판부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를 앞둔 현 시점에서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려면

현재의 강의실은 개조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멀티미디어 원격교육 시스템을 조속히 설치하여 교수들의 강의가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참신하고 현대적 감각에 적응하여 사회에 진출할 때 선진화된 사고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증가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우리대학은 다른 대학들과는 차별적인 교육의 변혁과 제도의 혁신, 각 학과와 학부별 특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대학의 양상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구현해야만 할 시기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21세기의 교육은 지금과는 많은 부분에서 그 양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측 가능한 시대상황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의대 및 기반시설

현재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의과 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문제라고 봅니다. 그 중에도 부속병원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부속병원은 우리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의 복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그 위치선정 및 운영방안을 다양하게 연구하여 도민들의 접근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대학내의 구성원 뿐 아니라 사회각계의 인사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속병원시설에 따른 예산은 교육부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부와 접촉이 우선 되어야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현 제주의료원과 합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대 부속 병원은 우리 대학교시설이 아닌 도민을 위한 시설임을 널리 주시시키고 도민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실습이 필수적인 자연계 학과나 24시간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는 실험실습기자재가 정전으로 인해 모든 자료가 일시에 없어지거나 실험재료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 이에 대비한 비상용 자동자가발전시설은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로 우리대학의 모든 시설의 공간적 배치는 경관적 측면과 동성의 편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모든 약속을 기필코 수행할 것이며 이를 이루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교수님들의 질타를 감수하겠습니다.

색깔있는 대우광고 만들기③

세계경영, 다음 세대와의 약속입니다

대우가족

참을 수 없는 크리에이티브를 위하여!

설명을 좀 더 해달라는 뜻인가?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는 침묵의 무게만큼 굳게 입을 다문 창작팀원들이 답답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허기를 느끼며 어미의 주둥이를 쳐다보는 어린 새같은 눈빛에 목구멍까지 다가선 '이런 생각없는 녀석들'이란 욕설이 함없이 주저앉는다. 벌써 2시간째 거의 막혀버린 싱크대의 개수물처럼 느릿느릿 뱀도는 지리함으로 '세계경영=다음세대와의 약속'이라는 화두는 회의에 참석한 모두의 머리에 콕콕 얹고 또아리를 틀고 있다. "오늘은 됐다. 처리라 집자, 집어."라고 외침과 생각했던 김백호 팀장의 얼굴이 반쯤 일그러질 때, 단내 나도록 막다른 입으로 속을 태우던 기획팀 최정민 차장이 예기치 못한 일상을 내뿜는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신문 봤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30대 그룹의 재무현황 관련 기사입니다. 거기 보니까 지난해 대우그룹이 경영자는 물론이고 30대 그룹 평균보다 월등한 차이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세 부문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출액 증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30%를 유지해 왔고 순이익율도 경쟁그룹보다 2배 이상이고 30대그룹 평균보다 무려 4.5배가 높아요. 반면 부채비율이나 자기자본비율은 4대그룹 중 가장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대우가 세계경영을 한다니까 부자가 늘어 경영구조가 나빠지는 게 아니냐는 질시섞인 의구심이 담겨있는 게 사실이지 않아요."

그래선데 이제부터 전 세계에서 이룩한 실질적인 성과와 그로 인해 개선되는 내실경영의 모습을 조화시켜 세계경영을 부각시키면 어떨까요? "어! 그게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얼마전 대학생 대상으로 조사된 기업 이미지 평가에서 대우그룹이 미래 성장가능성과 진취적인 세계화 두 개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지. 이전 바로 소비자들로부터 세계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대우가 신뢰와 믿음을 얻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 "그러면 이쯤부터 대우는 왜 이처럼 남달리 오대양 육대주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 고민을 해보지?" "바로 그 부분이 '세계경영, 다음세대와의 약속'입니다"와 연결되는 핵심고리 아닐까? 내 생각으로는 세계경영의 우수한 성과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기 보다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우의 기업정신 또는 대우의 존재의미를 전파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물론 그 밑바탕에는 세계경영에 대한 대우의 자신감이 깔려있고... 맞아? 광고경력이 화려한 창작팀 안병희 팀장이 정곡을 찌른다. "바로 그거야! 더 설명할 필요도 없네!" 김백호 팀장은 손으로 탁자를 내려치며 환호를 질렀다. 야가의 깔깔하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르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가 공감하고 그들과 대우라는 기업사이의 친근감을 좀더 강화하지는 거지." 그리고 대우의 기업정신과 국민정서 사이에 공통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아들, 딸을 위해'로 요약되자. 그래서 '다음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컨셉트를 생각해?" "확실한 거지?" 안병희는 기획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지만 다른 스텝을 위해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이어 창작팀을 이끄는 양기복 CEO도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다음세대와의 약속이라... '할인하면 꽤 멋진 캠페인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한번 해보지구. 이차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린이를 출연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이틀테면, 해외에 나가 있는 대우인의 자녀라든가..." "반대로 외국에 있는 대우인이 늘 함께 못해주는 딸에게 따뜻한 편지를 쓰는 것은 어때요?" 회의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디자이너 이용은 차장의 한마디를 시작으로 냄비위로 떠오르는 팔콘처럼 아이디어가 튀어 다닌다. 이제 침묵은 회의실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침내 크리에이티브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편에 계속...)



21세기형 제주대학 건설

소견서



고 남 욱
경제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제주대학교는 학문의 발전과 지역 사회의 여러 분야를 이끄는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이처럼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을 딛고 묵묵히 연구하며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 오신 교수님들의 노력이 결과입니다. 고도 산업화, 정보화 시대로 급변하는 시대 상황은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 없게 합니다. 따라서 능동적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대학은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학문을 연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제주대학교는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합니다. 이 도약은 우리 제주대학교를 명문 대학으로 만들어 낼 것으로 믿습니다. 그 힘은 여러 교수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총장을 비롯한 몇몇 보직 교수들만이 이끌던 권위주의적 대학의 구태의연한 구각을 깨고 적극적으로 대학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더 이상 냉소주의자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지니고 있는 이상과 욕구를 모아 조화 속에서 총체적인 비전을 창출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꿈이 넘쳐나고 그 꿈을 실현하는 대학을 이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총장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주대학교가 나아갈 희망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과 능률을 최우선에 두고 대학을 창조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경영총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능의 신장과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가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권위주의적 행정체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서비스 지향적인 합리적 행정체제를 바로 세우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서 대학을 집진적으로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가는 **개혁총장**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대학의 학사운영과 정책결정과정

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구하는 **민주총장**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대학재정의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확보에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대학교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제주대학교가 대내외적으로 무색무취한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사운영과 대학정책들의 대부분은 경쟁대학들의 선례를 뒤따라 보니 창의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고 경쟁대학들에게 항상 뒤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대학발전계획안의 입안, 추진이 오로지 제주대학교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모든 행정력은 교육부 행정지시에만 定向되어 있어서 제주대학교만의 독특한 학문전락과 발전적 교육방침보다 교육부의 평가를 받기 위한 발전계획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학사운영 때문에 학과별 독창성이 매몰되어 버리고 창의적인 단과대학의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구심점이 없고 졸업생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재학생은 물론 동문들 사이에도 애교심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미래,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교육, 연구기능의 질 향상.

대학운영의 중앙집권화를 지양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이 확보되는 단과대학과, 학과, 학부 중심의 학사행정체제를 수립하며, 권한과 책임을 단과대학으로 대폭 이양하는 분권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 ① 교수해의파견제도 대폭 개선
- ② 연구교수제 및 POST·DOC지원제도 도입
- ③ 교수 연구실적의 경쟁적 평가제
- ④ 교수책임시수의 하향조정
- ⑤ 대학원 전임교수제도 도입
- ⑥ 교수의 연구자원을 위한 행정체계 개선.

▲ 대학행정 서비스의 구현.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열린 행정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① 대학의 경영혁신과 책임행정구현
- ② 직원인사제도 개혁
- ③ 여교수 보직참여, 확대
- ④ 총장 및 처·실장 업적평가제 도입
- ⑤ 「교수발전제도」도입

▲ 대학의 특성화·정보화

타대학과 함께 호흡하며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정보화가 필수적입니다. ①국제간 학술, 교수, 학생 정보교류확대, ②도서관 행정을 효율화하고 중앙도서관을 종합 학술정보센터화, ③원격강의 체계 추진, ④학

과내 특성화 분야 발굴장려 및 육성.

▲ 발전기금 조성

제주대학교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금조성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①공공기관출연, 국가예산배정, ②동문·독지가 사회단체모금, ③예산남비제거 캠페인 전개, ④예산절약사태발표(인사고과 반영).

다음의 쟁점사항을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 ① 소수의견, 작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②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정보의 공개를 약속합니다.
- ③ 도서관의 기능을 「종합학술정보센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④ 단과대학 및 학과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 ⑤ 최사전공인정학점제와 교수의 법정시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 ⑥ 교육특성화 및 교육과정의 개선.
- ⑦ 교직원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등 교권의 확립과 연구경쟁력의 보장.
- ⑧ 대학구성원과 가족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민간「종합병원」과 제휴하여 종합정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대 클리닉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⑨ 실내 수영장을 갖춘 종합레크리에이션터를 설립하여 대학구성원들의 생활 및 여가 체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⑩ 의과대학의 운영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대학기성회계 예산에 의한 대학병원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별도의 의과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주요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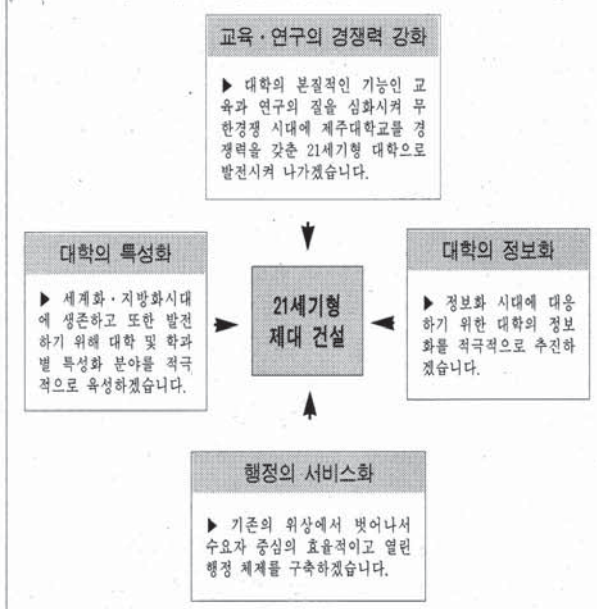
- 1938년 3월 20일 제주도 출생
- 제주대학교 상학과 졸업(1963)
-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1965)
-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1983)
-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객원교수
- 제주대학교 학생처장, 교무처장
- 대학평의회 의장
- 제주대학교 관광개발연구소장, 지역사회발전연구소장, 동아시아 연구소장
-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노동부 노동정책 평가위원

○ 학회활동

한국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관광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 저서 및 논문
『한국 도시가계의 저축행태』(1986)
『남북 경제통합의 과제와 전망』 외 다수

주요공약

‘제주대학교의 미래’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대학운영에 경영개념 도입해 효율성 제고

제주대학교의 실정을 살펴볼 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운영에 경영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영개념이 도입된 대학운영이란 먼저 대학의 조직을 개편해 '작지만 강력한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하고, 대학발전의 주요 재원인 발전기금의 확보에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총력을 기울이며, 최신 경영기법을 대학 실정에 알맞게 도입해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겠습니다.

- ◆ 국내외 굴지의 민간연구소에 컨설팅 용역을 발주해 경영진단을 받는다.
- ◆ restructuring기법을 도입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10% 절약해 투자재원으로 활용 한다.
- ◆ reengineering기법을 도입해 서비스 중심의 행정체제로 개편한다.
- ◆ 현재의 중앙집중식 시스템에서 단과대학, 학부 및 학과 중심의 분산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 ◆ 재산 4년동안 대학발전기금 1백억원을 모금한다.
- ◆ benchmarking기법을 도입해 조직 개편에 성공한 국내외 대학을 선정해서 사례연구를 하고 제주대학교에 적용한다.
- ◆ 이미 결정된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부지에 대해서 재검토한다.

둘째,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연구의 활성화 도모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이 달라져야 하며 '교육중심-특화연구대학'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분야에서도 각 단과대학 및 학부와 학과가 전국에서 비교우위를 갖출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의 특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 ◆ 최소 전공인정학점의 범위를 36~50학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 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뤄 경쟁력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며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 외국인 교수를 증원해 각 대학에 적어도 1명 이상 배치한다.
- ◆ 장학금의 총액은 본부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유형은 각 대학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 교육개방에 대비하여 대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 국내외 대학과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협정을 체결한다.
- ◆ 대학기숙사 시설을 확충한다.
- ◆ 교수의 강의 책임시수를 하향 조정하고, 법정시수가 부족한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논문으로 부족시수를 대신하도록 한다.
- ◆ 교수 연구년제를 실시하고, 현재 20명 수준의 해외파견교수의 수를 단계적으로 30명까지 확대한다.
- ◆ 단기연구(방학 및 한 학기)파견교수제도를 부활해 매학기 10명씩 파견한다.
- ◆ 국내외 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게재료를 전액 지원하고 연구장려금을 지급한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제주대학교의 위상 정립

제주대학교의 기반시설(hardware)은 다른 어느 지방대학에 못지 않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못다 갖춘 기반시설과 첨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한편 software와 humanware를 갖춰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을 감동시키고, 존경과 사랑을 이룰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 ◆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 ◆ 대학연구소를 활성화시켜 지역연구에 특화하도록 하며 학·연·산·관의 연구 유대를 강화한다.
- ◆ 캠퍼스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국제 원격학사수업 체제를 안비한다.
- ◆ 교육매체제작실을 전자계산소에 신설하고 각 대학별로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확보한다.
- ◆ 전산요원을 보강하고 전문화를 강화하여 대지역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 제주대학교를 지역정보센터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 ◆ 가상대학(virtual university)을 추진한다.

넷째, 대학구성원의 복지증진

대학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신바람' 나는 제대 건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가족들의 복지증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 웰스 센터를 겸비한 종합레크리에이션 센터의 설립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
- ◆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전국 국립대학 평균 수준 이상으로 지급한다.
- ◆ 소수의 의견이나 작은 의견도 소홀함이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 총장 Homepage를 개설해 운영한다.
- ◆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학내 문제의 해결에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公約들이 空約이 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실천하겠습니다.

1.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21세기형 제대건설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책임 아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2. 추진사항은 총장 Homepage를 통해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하여 2년 후에 총장 재신임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POSCO 메사지 종강편



편식도 때로는 힘이 됩니다.

총장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겠지만 이번 방학에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한가지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배낭여행, 영어회화, 농활, 연애... 그 어떤것이라도 좋습니다. 한가지일에 한번 미쳐보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부딪쳐보는 겁니다.

젊은 시절 한때의 값진 경험이 인생의 산지식이 되기도 하니까요. 편식이 때로는 미쳐 발전치 못한 인생의 다른면을 보게 하기도 합니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

합리적 개혁, 새 역사의 창조를

소견서

학력 및 경력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영어학 전공,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영어학 전공(문학석사), 하버드대학 객원교수(2년6개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인문대학장·교수협의회장·외국어교육관장, 한국영어영문학회부회장, 한국아메리카학회부회장, 일본·싱가폴·광 등 동남아 6개국 문화관광 연구시찰, 런던 옥스포드대학·파리 문학비교시찰

연구실적 및 상훈

저서「GB이론」(한신문화사, 1996)의 논문 다수, 1974년 12월 제주대학교 총동창회 감사패(제대 부지확보공로), 1980년 제주대학장 공로패(제대 부지선정 및 확보공로), 1993년 한국아메리카학회 공로패, 1995년 11월 한국영어영문학회 감사패



양 우 진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인사 말씀

개교 45주년을 맞이하는 제주대학교가 21세기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고 연구, 교육의 내실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대학부지의 선정, 확보를 추진한 1971년이 발전의 기틀이 형성된 시점이라면, 지금은 제2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외국대학의 연구, 교육환경을 참조하되 제주도의 현실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제주대학상을 정립하여 인류와 함께 미래로 힘찬 행진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 발전 구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공약사항 참조).

저에게 신뢰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공약사업 실천과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만 한국의 대학은 이제 거둔다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어느 대학에서든 먼저 햇볕을 들어야 하는데 저는 그 대학의 맨앞에서 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에 대한 애정과 신뢰, 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구조적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우리 대학을 활력이 넘치는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약사항

I. 새로운 총장상 구현과 대학구조 개혁

1. 조직운영면의 개편으로 통시하는 총장 2. 교수 중심·학과 중심 체제로의 전환 3. 전면적인 행정전산화로 행정체제 및 경영의 효율성 증진 4. 비합리적 제도 및 규제 대폭정비

II.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

1. 교수 연구활동의 지원체제 강화: ①교수 연구년제 실시 ②교수의 신분보장 ③저서 발간비 지원-대학 출판부 활성화 ④교수 봉급, 초·중·고상위권으로 현실화 ⑤교수 긴급자금 지원체제 마련 ⑥명예교수 보수 지급 및 재직 중 사망한 유가족에 대한 지원체제 마련 ⑦명예교수, 원로교수를 위한 교수 연구동 건립 ⑧신임교수, 초빙교수를 위한 연구 정착금 마련 ⑨교수, 조교 증원 및 강의시수 합리적 방안 모색 2. 학문의 최상단위인 학과의 활성화: ①인사·예산·강의 등 학과관련 학사행정 학과에 위임 ②학과별 운영기금 1억원 지원 ③학과 재량에 의한 초빙교수제 실시 ④학과 학회 활성화 3. 대학 부속기관 및 연구소 활성화: ①전문인력확보 ②정보 네트워크 구축 ③자체기금확보 방안 마련 ④시설 보완 4.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확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 ①국제 정보시스템 구축 ②국제 교류센터 설립 ③해외 파견 교수 증원 및 경비 현실화 ④학술회의의 참가비 및 학술회의의 유치 경비 지원 ⑤학생의 국내외 교류방안 추진 5. 종합 학술정보체제 구축 6. 교육전문 연구기관 활성화: ①초·중등학교교육 연구 ②대학·대학원교육 및 학생 지도방안 연구 ③사회교육 ④교육대학의 제주대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합리적, 체계적 운영을 위한 교육관련 학과 신설

III. 재정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1. 국고지원 및 교육차관 도입 추진 2. 산학연 공동프로젝트개발 및 지원 3. 시민·동문·교포 참여 유도: ①시민을 위한 교

육기회 확대 ②체육시설·연구소·부속기관·강의실 등 학교시설 개발 ③교포 2세 교육 4. 수익사업 전개: ①저효율성 자산의 생산적 활용 및 투자 ②학과·부속기관·연구소 등 자체기금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전개 ③학생인력활용을 통한 장학프로그램 활성화 5. 발전기금 모금-100억원 목표: ①동문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한 번 내기」운동 전개 ②도내 투자기업·해동동포·독지가 및 전도민을 대상으로 한 발전기금 모금 전개 ③기여 우대 제도·도입 및 그 가족의 「제대가족」 상용 대우 6. 기성회 예산을 비롯한 모든 재정을 영기준(zero base)에서 연구분석하여 전면 재편성 7. 정문 앞 10만평 확보: ①주차장 등과 시민을 위한 수익 시설 ②종합레저·스포츠센터 설립 ③캠퍼스 타운조성

IV. 학교 시설 및 연구·교육환경

1. 시설 이용계획 수립: ①조화롭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 조성 ②연구·교육 공간 마련 ③주차시설 확충-주차빌딩 건축 ④부대 시설 현대화-식당·매점·서점 등 ⑤교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 시설 배치 2. 연구·교육시설 확충: ①국고지원 및 차관도입 적극 전개 ②외부지원 시설 유치 방안 마련 3. 휴식 및 문화공간: ①실내 수영장, 사우나실, 운동실 등 레저·스포츠 센터 설립 ②대학미술관, 음악공연장 등 예술공간 시설 확보 및 예술대학 설립 ③교내 휴식공간 마련 4. 사이언스 파크 건설: ①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 캠퍼스 조성 ②자연과학 분야 도서실 설치 ③자연계열의 협동연구를 통한 효율성 증진 ④공동 실험 실습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설비 확충 ⑤산학협동 및 수익사업 전개

V. 기초과학분야 육성 및 의과대학 연계

1. 기초과학분야 집중육성과 기존학과 시설 우선 원칙 2. 기초의학 부문은 기존학과와 연계 3. 임상의학은 도내의 유수 종합병원과 연계 4. 의과 대학 예산 정치적 해결: ①세 국회의원과 제 주도 지사와 협의 ②주요정당 대통령 임후보, 정책담당자와 협의하여 선거공약에 반영

주요공약

여기서는 아래에 제시한 공약사항 중에서 핵심적인 ①구조적 병폐인 관료주의 체제를 학과중심, 교수중심 체제로 전환 ②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 ③재정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④기초과학분야 육성 및 의과대학 연계 등의 공약을 채택한 이유와 배경 그리고 그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구조적 병폐인 관료주의 체제를 학과 중심, 교수 중심체제로 전환

우리나라에는 세계 대학 랭킹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이 없다. 심지어 아시아권에서도 상위권인 15위 안에 드는 대학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은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한다. 또한 대학에 투자하는 재정 규모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진 편이 아니며, 아시아권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수들의 연구 열기는 선진국의 대학에 비해서도 결코 뒤진 편이 아니다. 정부나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세계경쟁에 앞서기 위해서 몇 개 대학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 자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의 주요한 기능인 창조적 기능을 망각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예산편성 및 집행, 학과정원, 복수전공, 학부제, 기초 전공제, 커리큘럼 등은 아직까지도 교육부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게다가 총장이나 집행 담당자는 이에 한 술 더 떠서 대학 자체의 규제 만들기를 능사로 여긴다. 이런 대학 풍토에서는 창조적 기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경쟁에서 앞서 가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버드대학 등 선진국 대학의 운영은 철저한 학과 중심, 교수 중심 체제로 이루어지며 심지어 총장은 교내규정의 제정권도 없다. 혹자는 이러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 대학 실정, 특히 제주대학 실정에서는 합당하다고 말할지 모르나 우리나라 대학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의 대학들 중에는 세계 내지 아시아권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대학의 예가 분명히 있으므로 제주대학에서도 선진국으로 노력하여 학과·교수 중심의 운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실현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

대학의 3대 기능은 연구·교육·사회봉사이다. 연구의 질이 향상되면 훌륭한 교육, 바람직한 사회 봉사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연구의 주체는 교수들이다. 그런데 교수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분 보장과 생활안정이다. 교수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연구,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대학 교수의 봉급수준은 사립대학에 비하여 70%선이며 다른 국립대학에 비하여도 뒤진 편이다. 교수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는 큰 어려움을 겪어 충분한 용자를 받을 수 있고, 갑자기 교수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며 명예교수에게도 보수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인 면에서 교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와함께 교수들의 신분 보장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대학에서만 교수 재임 용제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학과자치제는 우리대학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보려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년 중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다. 학과자치제란 예산, 인사 등 모든 것을 학과로 일임하는 제도이다. 각 학과별로 1억원 씩이 지원되면 이를 바탕으로 학과에서는 기금을 더 모을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학과에서는 유명학자 초빙교수제 등 학과 학회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본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인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강화하고 대학 전신상을 확충하여 종합학술정보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함께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여 이를 교육 목표로 반영하기 위한 교육 전문 연구 기관을 마련하려고 한다.

재정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재원은 대학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국고지원, 차관도입, 외부지원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중 국고지원과 차관도입은 총장의 정치력에 의해, 외부지원은 대학의 여건과 우리들의 노력에 의하여 각각 결정된다. 본인은 한때 중앙예산을 결정하는 기관에 근무해 본 경험이 있어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외부지원은 전적으로 자기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때의 자기 노력이란 시민들에게 철저히 봉사하는 대학의 자세를 말한다. 이러한 자세가 확고하게 서

을 때 외부지원은 가능하다.

대학 자체에서는 물론 각 학과에서는 지원된 1억원을 기본으로, 각 연구소와 부속기관에서도 산·학·연 협동 체제로 본격적인 수익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본인은 발전기금 1백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동문들을 상대로 「등록금 한 번 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제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체, 제주도민, 재외동포, 기타 독지가를 상대로 모금 활동을 펼 계획이다. 그리고 경영진단과 업무 분석을 통해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고 학교 행정, 경영을 쇄신하여 자체비용을 절감하려 한다. 또한 학교 정문앞에 10만평을 확보하여 주차 시설과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의 재원 확보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기초과학 분야 육성 및 의과대학 연계

우리나라 대학이 학문적으로 선진국의 대학보다 뒤진 것은 무엇보다도 기초과학 분야가 육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과학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본인은 의과대학 문제에 대하여 하버드대학, MIT, 콜롬비아대학, 보스턴대학 등 몇몇 대학의 관련 교수들과 토의한 결과 기초과학 분야를 육성하고 이를 의과대학과 연계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의과대학 문제는 반드시 만족스럽고 명쾌하게 해결되어야 할 제주대학의 현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의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초의학 부분은 대학 시설을 이용하고, 임상의학 부분은 당분간 도내외의 수준급 병원과 협정을 맺어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하버드대학, 보스턴대학, 콜롬비아대학 같은 세계적인 대학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의과대학 건물을 짓고 시설을 갖추는데 약 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시기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주요 정당의 선거 공약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대통령 임후보자들은 물론 주요 정책 입안자들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지으려 한다.

위에 제시한 공약은 본인의 오랜 대학 생활과 사회 경력, 외국에서의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교수들의 진지한 조언을 수렴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공약을 실천함에 있어서 큰 차질을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인은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내후년 3월까지의 만족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제3회 CULTURETTE 선발

태평양「여대생 논문」공모전

- 참가대상: 전국 각 대학 재학중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 공모기간: '97. 9. 1 ~ 10. 31
- 공모주제: 한국 여성의 과거, 현재, 미래
- 공모방법:
 - 분량: A4용지 20매 내외 분량 (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 제출)
 - 2장내의 논문요약내용 별첨
 - 논문 원본 1부 및 사본 2부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97년 9월 현재)
 - 자기소개서 1부 (여권용사진 부착)
 - 연락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시상: 최우수상 1명: 상패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 3명: 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
장려상 5명: 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
- 입상자 발표: 1997년 12월 13일 (토요일) 개별통지
- 제출처: 우편번호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75-2 성원빌딩 태평양장학문화재단 사무국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마감일전 도착분에 한함)
- 기타사항: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 수상자는 당사 입사시 우대
 - 수상자는 졸업때까지 매년 1회이상의 컬처렛 모임 초대
 - 수상자 전원에게 2박 3일 태평양 제주농장 견학
 - 제출논문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지에 발표되지 않아야 함
 - 응모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태평양장학문화재단 사무국 (02-749-2388/02-709-5631)
- 상사기준: 독창성, 논리성, 실용성

신사임당, 그녀는 1500년대의 페미니스트였습니다

혁명을 일으키지도, 구호를 외치지도 않았지만 오늘날 훌륭한 한국여성의 표상으로 기억되는 신사임당- 그녀는 앞선 시각으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며 사교의 리더로서 진정한 페미니스트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만큼 앞선 시각으로 여대생 여러분들의 사고를 맑게 펼쳐보십시오.

■ 신사임당 (1504-1551 조선 안동)
출처: 1997년 9월 10일 한민일보, 3월 4일
한겨레, 1997년 9월 10일 한민일보, 3월 4일
그리고 최근의 안동 여대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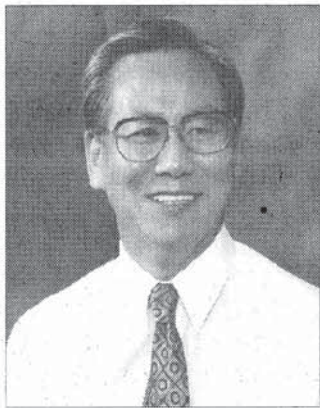
태평양

컬처렛 (CULTURETTE)이란?
여성문화 활동을 통하여 앞으로의 21세기 새로운 여성문화를 창조하는 일차적 여성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테마대학

지역사회 특성 살려 세계로 뻗자

소견서



신 행철
사회학과 교수

저는 21세기를 맞으며 우리 제주대학교가 창조적이고 열린 학문공동체로서 '21세기의 꿈이 영그는 명문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시대로서, 정보화 속에서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교육적 가치도 다양성이 추구되는 시대이므로 지방대학의 특수성은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이에 저는 우리 제주대학교의 목표를 '테마대학'에 두고 모든 시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테마대학에 관해서는 6월 3일자 [제대신문] 5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그 동안 빠른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양적 팽창에 비하면 내실을 기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올바른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꾸고, 기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운영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 개혁의 흐름 속에서 교육과 연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사운영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특정 있고 질 높은 교육과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학을 목표 삼아 운영 면에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네트워크형 조직체계를, 대외 관계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와 국제 학술 교류의 획기적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제가 생각한 학교 운영의 기본 원칙과 주요 공약을 제시하겠습니다.

교육과 연구

양질의 교육기획과 특성 있는 연구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1. 각 학문 영역별로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를 유도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도서관 재정을 크게 늘리고,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육과 연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 활용하도록 하고, 강의에 필요한 시청각 교재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4. 강의실과 실험실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과 재정

학사 운영을 민주화하고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가치 '제대발전기'를 구성하여 21세기를 향한 명문 대학으로 나아가 발진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6. 연구와 교육을 가로막는 병폐와 규제를 없애고 행정편의의 관행을 철폐하겠습니다.
7. 민주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책임행정, 제안실명제, 사전예고제, 전자민주제를 실시하고 네트워킹형 위원회 등의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8. 학내 감사 기능을 도입하여 행정과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감사 결과를 다음 번 계획과 실천에 반영함으로써,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9. 다양하고 효과적인 모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전기금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겠습니다.

인사와 복지

교수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 교수 책임시수의 경감, 연구 교수제의 도입, 인사위원회제도의 개선을 통해 교수들의 신분상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겠습니다.
11. 소비조합을 생활협동조합으로 개편하여 값싸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외 협력

대외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교류를 추구하겠습니다.

12. '학교 통합이미지계획'(Campus C. I. Plan)을 수립 시행하여 대외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사회교육(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대 지역사회 교육 및 봉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4. 국제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대학과의 교수 교류와 공동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유명 대학과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외국 대학에서의 수학 기회를 제공하는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간추려 말씀드린 주요 공약사항들 이외의 공약사항들과 그 상세한 내용은 지난 5월 15일 개설하고 곧 개정하게 될 저의 홈페이지에 있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hchshin.cheju.ac.kr>).

끝으로 저의 주요 학력과 경력 및 주요 연구업적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 취득
<경력>
공군 중위로 제대
중등학교 교사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발전연구소장, 인문대학장, 기획연구실장 역임
<학회활동>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제주도연구회 회장 역임
<상훈>
학술원에서 '우수학술연구논문' 상
제주도로부터 학술부문 제주도문화상
<저서>
『제주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일지사 간) 등 2편
<연구논문>
"제주마을의 공동생활권으로서의 성격과 그 변화에 대한 연구"(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4집 게재) 외 33편
<영역 보고서>
「한태평양시대 제주도의 세계화 전략 - 기본구상」 외 7편

주요공약

저는 우리 제주대학교의 목표를 '테마대학'에 두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왼쪽 지면 소견서의 여러 공약들 중에서 중요한 공약 네가지를 선택하여 그 채택 이유와 실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I. 각 학과·학부·단과대학 기타 연구소 등 모든 학문 활동의 단위별로 테마를 발굴하도록 하여 특성화를 유도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계화시대 소위 무한 경쟁체제에서는 특성화가 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는 물론 학과·학부 등 모든 학문단위가 제주지역사회의 비교 우위 부문에 관련하여 그 특유의 주제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실천 방법은 일단대로 학문활동의 단위별로 테마를 발굴하여 그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 발전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실행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이미 관광, 해양, 아열대농업 부문이 특성화 부문으로 선정되고 있는데, 이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가속화하면서 그 테마에 관련된 영역들을 확대 조직화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타 분야에서도 적절한 테마를 개발토록 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의과대학의 경우 자연치치의 학, 공과대학의 경우 청정에너지 부문 등)

II.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규제는 창조활동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학사운영은 학내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동원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절하게 조직화하는 것은 민주적 운영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실천 방법으로 첫째, 가치 '제대발전기'를 구성하여 21세기를 향한 명문 대학으로 나아가 발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기획단'은 현재 우리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발전의 잠재력 등을 발견 점검하고 학교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한 학내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형 위원회 조직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분권화를 적극 추진하여 본부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권한들을 가능한 한 단과대학과 학과·학부로 이관, 그 자율성을 증대 시킴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운영에 교수들을 적극 참여시키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도입하고, 제안이 채택되면 해당 교수를 포상하고, 그 제안을 실행화하는 제안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 실현 방법으로 첫째, 교수 책임시수를 감감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학부제 실시 학과는 주당 6시간, 다른 학과는 주당 8시간으로 1차 조정하고 다른 여건을 보완하여 2001년까지 전교수의 책임 시수를 6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교수의 전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강좌 개설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할 뿐 아니라 대형강좌의 분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대학 자율권의 인정을 전제로 연구 교수제를 도입하여 학부제와 복수전공제의 실시에 따라 강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교수들은 강의 없는 학기에는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연구년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망에 따라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의 배속도 고려하겠습니다.

셋째, 인사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교수 신분에 현저한 손상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제도를 적극 고려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교수가 인사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IV. 지역사회 및 세계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교류를 추구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교육 시장이 개방되는 시대상에서 대학은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서만이 발전이 가능하며, 국가의 경쟁력을 넘어 대학 대학의 직접적인 교섭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첫째, 현재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대학들과의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외국 대학과의 협의를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외 대학으로 나가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게시판을 통한 토론의 장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작업집(네트워크형의 위원회 조직)을 구성, 그 일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겠습니다. 학생관련 사항은 학생대표의 참여도 고려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학내 감사 기능을 도입하여 행정과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III. 교수들의 신분상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겠습니다.

이 공약이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원 책임제도의 비합리적 운영에 따른 책임용

탈락이라든가, 학부제와 더불어 시행되는 최소인정학점제에 따른 책임시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교수 신분 불안에 초래하고 교수 간에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현 방법으로 첫째, 교수 책임시수를 감감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학부제 실시 학과는 주당 6시간, 다른 학과는 주당 8시간으로 1차 조정하고 다른 여건을 보완하여 2001년까지 전교수의 책임 시수를 6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교수의 전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강좌 개설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할 뿐 아니라 대형강좌의 분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대학 자율권의 인정을 전제로 연구 교수제를 도입하여 학부제와 복수전공제의 실시에 따라 강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교수들은 강의 없는 학기에는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연구년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망에 따라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의 배속도 고려하겠습니다.

셋째, 인사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교수 신분에 현저한 손상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제도를 적극 고려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교수가 인사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IV. 지역사회 및 세계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교류를 추구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교육 시장이 개방되는 시대상에서 대학은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서만이 발전이 가능하며, 국가의 경쟁력을 넘어 대학 대학의 직접적인 교섭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첫째, 현재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대학들과의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외국 대학과의 협의를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외 대학으로 나가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게시판을 통한 토론의 장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작업집(네트워크형의 위원회 조직)을 구성, 그 일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겠습니다. 학생관련 사항은 학생대표의 참여도 고려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학내 감사 기능을 도입하여 행정과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III. 교수들의 신분상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겠습니다.

이 공약이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원 책임제도의 비합리적 운영에 따른 책임용

제주대학교 교수초빙

1. 초빙분야

소 속	초빙분야	소 속	초빙분야
독어독문과	독어학	해양생산과학부	유전공학
법학과	형사법(형사소송법 포함)	해양토목공학과	해양토목시공학
경영학과	경영정보론	환경공학과	해양수질관리(환경공학전공)
	재무관리	물리학과	실험물리(비선형광학 또는 플라스마 물리학)
관광경영학과	식음료관리론	전산통계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
관광개발학과	관광시설계획(리조트설계 가능한 분)	의류학과	패션마켓팅
영어교육과	영문학	의예학과	의공학전공
상업교육과	상업교과교육론(경영관리 또는 경영전산 강의 가능한 분)	기계에너지	메카트로닉스
컴퓨터교육과	프로그래밍	생산공학부	시스템프로그래밍
수의학과	수의약리학	통신컴퓨터공학부	
	수의화학	건축공학과	건축계획 및 설계

2. 초빙인원 : 분야별 각 1명

3. 자격 : 해당분야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4. 제출서류

- 가. 지원서(본교조정양식, 우편 또는 FAX교부도 가함) 1부 나. 학력 및 성적 증명서(학사, 석사, 박사)원본 각 1부 다.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전경력)원본 1부 라. 연구실적 목록(제목, 연구자, 발표일월일, 발표지 및 논문 개요 기재·국문으로 작성) 1부
- 마. 연구실적물
 - 1) 학위논문 각 1부
 - 2) 학위논문 이외에 '93. 9. 1 이후 발표된 연구실적 원본 편(권)당 각 1부
 ※ 300%의 범위내에서 심사하므로 실사를 원하는 연구논문(실적)과 연구실적목록에 "실사용"이라고 표기하여 아 함. 단, 학위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바.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번역문을 필히 제출할 것
5. 서류접수기간 : 1997. 6. 16(월) ~ 1997. 6. 18(수) 18: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된 것만 접수함
6. 서류접수처 : 우편번호 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7. 기타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나.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인사관련규정 및 공채 지침에 의함.
 -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본교 교무처 교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064-54-2014~5, FAX 064-55-6204, 55-6130

제 주 대 학 교 총 장

'97년도 예비군교육훈련 일정 공고

'97년도 우리대학교 징집예비군(학생·교수) 일반(기본) 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등 기간중 빠짐없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교육기간 : 1997. 6. 23 - 6. 27(05일간)
2. 교육장소 : 해병 92대대(제주시 연동 소재)
3. 교육대상
 - 가. 전역 1-5년차(92년부터 96년까지), 사병(방위복무자 포함) 및 일반학생 전역자
 - 나. 전역 1-7년차(90년부터 96년까지), 단기복사, 이상 징조 전역자
4. 교육비대상자
 - 가. 사병(방위복무자 포함) 및 일반 학생 전역자 중
 - ◇ 당해년도(97년도) 전역자
 - ◇ 전역 6-8년차(89-91년도 전역자)해당자
 - 나. 단기복사 이상 징조전역자 중
 - ◇ 당해년도(97년도) 전역자
 - ◇ 전역 8년차 이후(89년전 전역자) 해당자
5. 교육일정표

일 자	학 급	해 당 소 속 대 학	인 원
'97. 6. 23(월)	A	농과대학 : 311, 사범대학 : 42	353
'97. 6. 24(화)	B	법정대학 : 216, 자연과학대학 : 227	443
'97. 6. 25(수)	C	인문대학 : 119, 해양과학대학 : 291	410
'97. 6. 26(목)	D	공과대학 : 506	506
'97. 6. 27(금)	E	교원 : 5, 대학원 : 68, 경상대학 : 258	331
계			2,043

6. 유의사항
 - 가. 단과대학별(학급별)교육 해당 당일에만 한함(단 단과대학은 교육 불가)
 - 나. 교육당일 07:45까지 시간 엄수, 교육장에 도착할 것(지각자는 보충교육 시간 가산됨)
 - 다. 중식은 개인별 지참함
 - 라. 복장
 - 입소시 : 예비군복 착용할 것(모자,후면화,명찰,학대 등 규정된 복장을 착용)
 - 규정한 복장 위반자는 입소수 없음
 - 퇴소시 : 사복착용(입소시 사복을 지참함)
 - 마.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등) 및 도장, 필기구 필히 지참함
 - 급년부터 중식비가 지급되므로 도장을 지참할 것
 - 바. 교육불참시 보충교육 시간이 가산됨으로 정당한 사유(교육, 출장, 입소)로 교육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대원은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97. 6. 10일까지 연기원을 제출할 것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연대(주번호 4-2288,2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 5

제 주 대 학 교 총 장

세계(WORLD)를 지향하는 정보처리 전문학원

개강
7월 1일!!



- 14년 전통의 정보처리 전문학원
- C언어 전문학원 ⇒ C 전문가 과정 강의 중
- 인터넷 전문학원 ⇒ 전용회선 설치 운영 중
- PCT(PC활용능력평가)시험 총정리반
- 정보처리기사 필기·실기 대비반
- 사무정보 응용기사 필기·실기대비반
- 정보기기(통신)운용 기능사 필기·실기대비반
- COBOL ⇒ 전문가 강의
- WINDOWS 95, EXCEL 7.0 한글 3.0b
- VISUAL BASIC, 파워포인트

"연구하는 정신! 세심하고 철저한 교육이념의 틀 아래..."

월드컴퓨터학원
☎24-3321, 25-3321, 56-3321, 52-3321

새로운 발상, 근본적인 개혁 : 미래형 대학 건설을 위하여

소견서

우리 대학은 제주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지 반세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에게는 먼 이웃으로, 대학지망생들에게는 차선책으로 지인하는 대학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정책과제도 타 대학에서 그 대안이 마련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대학이 발전해야 그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동하지 못하고 불신의 벽만 높여 놓고 있습니다.

대학발전의 요체는 교육과 연구를 주무로 하는 교수들의 열성에 달려 있습니다. 대학행정도 이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학 교수들 대부분이 전국의 대학 교수들에 비하여 전혀 손색이 없는 실력과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닌 실력과 자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수님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집과 독선이 독주하는 곳에서는 창의력도 발전도 없습니다. 총장은 먼저 교수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 그리고 자질을 존중하고 교수들의 고충을



서 경 림
법학과 교수

자기의 것으로 받아드릴 수 있어야 이 대학을 대동(大同)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냉정한 세계화·지방화의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지역의 정치·경제·사

회·문화의 선도적 역할이 우리 대학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사회와 강한 연대의식을 맺고, 도민들의 지원을 얻어 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세계로 눈을 돌릴 때입니다. 총장은 신명을 걸고 그 촉매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대학은 총장 혼자만의 권위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총장에게 주어진 권한도 자제할 수 있어야 하며, 교수님들의 지혜를 빌어 함께 나가는 자세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여러분, 저가 선택이 되면 이상과 같은 신념과 자세로 사임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학을 이끌어, 가장 민주적인 총장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들의 대중화를 통하여 제주대학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도민과의 일체성을 확립하면서 국내외 대학과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수립하겠습니다. '새로운 발상, 근본적인 개혁, 미래형 대학건설'을 지향하는 저의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의 홈페이지(<http://justice.cheju.ac.kr>)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공약

- 불필요한 학사규제 철폐로 서비스 행정의 구현
- 행정 규모 축소 및 교육·연구지원인력 강화
- 책임시수 6시간으로 하향조정(실험실습시수 100% 반영)
- 전공분야의 성격에 따라 교수업적 평가기준 다원화
- 이용자 중심의 학술·행정 종합정보망 구축
- 캠퍼스 공원화 및 교직원 문화·복지 센터 건립

우리 대학은 그 동안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특히 교수인력과 시설부문에 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300여명의 박사급 인력이 우리 대학에 모여 있습니다. 시설의 측면에서도, 한 국적 현실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인력과 시설을 가지고, 고도, 민족스러운 정도의 연구·교육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일 것입니다. 특히 개방과 추세에 따라 대학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대학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런 남비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이 '대학행정의 낙후성', '연구·교육여건의 열악성'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학시설마저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에 이른 교수인력은 여건의 열악성 때문에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학행정의 선진화', '연구·교육여건의 선진화', '대학시설의 선진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대학행정의 선진화

역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행정부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하여 정치, 행정영역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지적되어 온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행정은 특히 구태의연함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학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첫째, 대학행정의 기본개념을 '규제행정'에서 '서비스행정'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서비스행정으로의 전환을 막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학사통제규정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대학내 학사 통제규정을 시급히 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둘째, 전문성 있는 행정인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교육의 추세에 따라 예를 들자면, 국제학술 교류 실무업무, 학술정보 검색업무, 출판·홍보 실무업무, 정보화 기술업무 등에 대한 전문행정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기존의 행정인력에 대한 선택적 재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에 기초한 발탁 인사를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 채용방식으로도 전문행정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셋째, 대학행정업무의 처리방식을 전산화·정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공개', '행정업무흐름의 단축'과 같은 행정개혁과 함께, '편리한 사용자 이용환경(interface)'의 구축 등, 소프트웨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연구·교육여건의 선진화

많은 사람들이 교육시장 개방에 따라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르는 연구·교육여건의 개선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연구·교육여건의 선진화야말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교수인력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수한 교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교수의 강의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연구 결과의 발표라는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가 갖는 중요성은 결정적입니다. 그러므로, 교수의 책임시수가 6시간으로 하향조정되어야 하고, 실험실습시수 100% 반영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의부담축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강의시수 1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연구년제(안식년제)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고, 제도적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파견교수제를 연구년제 개념에 따라 운용해야 합니다.

둘째,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에 기초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기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평가기준은,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공분야의 학문적 성격에 따라, 평가기준을 다원화시키고, 현재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교육부문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연구·교육의 지원시설 및 인력의 보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철폐와 행정전환을 통하여 분부행정의 규모축소(down-sizing)를 달성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잉여인력을 재배치하여 연구·교육 지원인력화해야 합니다. 물론 행정조교를 연구·교육 조교화시키고, 그 수도 늘여야 할 것입니다.

3. 대학시설의 선진화

대학시설의 선진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교육·연구·도서관·행정관련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편리한 사용자 이용환경(interface) 하에서 공개하는 정보화 전산화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정보전달방식이 활자매체에서 전자매체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고, 행정의 효율화, 연구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또 이러한 시설을 기초로, 도서관과 전산소를 '학술자료센터' 개념으로 연계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학술자료센터'를 연구·교육현장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보화된 캠퍼스를 기초로, 캠퍼스 공원화 및 각종 문화복지센터 건립들을 추진함으로써, 연구·교육에 이상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을 실현하는 데에도, 다음 두가지 전제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첫째, 대학구성원 전체의 대중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대학내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끝까지 애정을 가지고, 경청하고, 반영하고, 필요하면 설득하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이를 위한 다양한 대화채널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대학발전기금 및 수익사업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기존의 예산을 연구·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아무췌로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약사항

1. 돈과 사람을 모으겠습니다.

- ① 발전기금 모금 및 수익사업 개발에 경영적 기법도입
- ② 우수 교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교수공제 절차 개선
- ③ 국제교류, 정보화사업, 출판·홍보 등, 전문적 행정인력의 조속한 확보

2. 돈과 인력을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 ① 교육·연구에의 투자효과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예산체계의 전면개편
- ② 예산의 적극적 공개에 기초하여, 투명한 예산행정의 실현
- ③ 규제철폐와 전산화를 통하여 분부행정의 규모 축소

3. 불필요한 학사규제를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 ① 자율성 보장 원칙에 따라, 대학내 각종 규정의 전면적 재검토
- ② 대학내 각종 규정의 객관적 해석을 위한 공적인 기구와 절차의 마련
- ③ 대학내 규제 철폐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령 및 교육부지침 폐지운동 전개

4. 연구와 교육을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 ① 열악한 연구·교육 기본여건과 연구·교육 평가방법의 개선
- ② 특성화 부분의 지원과 신규개발을 통하여, 연구·교육의 경쟁력 강화
- ③ 행정규모축소를 기초로 하여, 교육·연구

구지원시설 및 인력의 보장

5. 취업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 ① 인간이 있고, 변화적응력이 뛰어난 학생의 양성이라는 방향으로 교육의 특성화 개념 도입
- ② 제주대학생 취업촉진을 위한 범도민적 기구의 설치
- ③ 취업 지역활당제·지역연고제 도입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전개

6. 대학시설을

선진화·미래화하겠습니다.

- ① 부족한 대학시설의 조속한 보충
- ② 교육·연구·행정 등의 통합 Intranet 구축
- ③ 멀티미디어 교육, 원격교육 등 미래의 교육에 대비한 시설 확충
- ④ 캠퍼스·공원화사업 및 교직원 종합문화 복지센터 건립추진

7. 감동을 주는

서비스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① 방문 행정서비스, 행정·학술자료 배달 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행정 실현
- ② 대학내 행정처분의 사전예고제와 이유 제시제 실시
- ③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의 정례화 실시
- ④ 행정서비스 고충처리 종합창구의 설치

8.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① 총장과 각학과와의 간담회 정례화, 총장과의 대화 채널 다원화, 상례화
- ② 교직원들간의 인간적 만남의 기회를 확

대하고, 적극 지원

9. 도민과 함께하는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 ①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종합기획과 운영을 위하여, 사회교육원 설립
- ② 캠퍼스 초청의 방 등, 도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기획·실시
- ③ 도내 기업과 각급 행정기관과의 연계강화

10. 국내외 대학과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수립하겠습니다.

- ① 각종 국제교류프로그램의 실무적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교류센터의 설치
- ② 캠퍼스 초청의 방 등,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적인 협력사업 전개
- ③ 국립대학간, 지방대학간 등 다양한 수준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11. 대학내 숙원사업의 해결에 전력을 기울겠습니다.

- ① 학사부문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예술대, 생활과학대 신설 추진
- ② 교육법에 따른 수의과대 신설 추진
- ③ 도민의 의료서비스 고급화 개념에 기초하여, 대학병원의 조속한 건립 추진

학력

제주대학 법학과(법학사), 고려대학교(법학사), 고려대학교(법학사)

경력

해병 예비역 대위, 하와이 대 파견교수,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장, 제주대학교 법정책연구소장, 제주대학교 학생처장,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장

북한을 알자

— 중앙도서관 소장 북한자료 소개 —

◆ 종류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백과사전 V.1~V.6	백과사전출판	평양	1982
력사과학문집16~17	력사연구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조선중앙년간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사	1988
김일성저작집 V.1~V.38	김일성	조선노동자출판사	1979
(김일성 종합대학 도서관) 도서목록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동치	1958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말과글 편	최창호	사회과학출판사	1992
북한의 주요현전 색인목록	통일원 편	동치	1995
북한자료목록 : 추록4	통일원	서울	1995
력사과학문집, 14	력사연구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김일성 저작집, V.41	김일성	조선노동자출판사	1988
인민들 속에서, 50	연형목	조선노동자출판사	1992

◆ 종교

구원선 전설(1 민족문)	김희중	문화예술 종합출판	1994
---------------	-----	-----------	------

◆ 순수과학

화학식물사전	김철홍	금성청년출판사	1991
우리나라 원시 동굴에서 발견된 원시인 및 고대사회의 기술 발전(민족문화 학술총서:4)	김용남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4

◆ 기술과학

동의학사전	과학백과출판사	과학백과출판사	1988
방약합편(일월간:16)	과학백과출판사	동치	1986
방약의 성분과 이용(일월간:16)	과학백과출판사	동치	1984
조선전쟁사적 소책자 연구(대한민국자료집:31)	허종호	한마당	1989
우리나라 농촌경제 발전의 역사적 경험	김승준	사회과학출판사	1988
조선사회의 기원(민족문화 학술총서:5)	장우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 예술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조선미술년간, 1986	조선미술년간편집부	문예출판사	1986
조선미술년간, 1988	조선미술년간편집부	문예출판사	1990
주체의 미학관리 조형미	김재홍	조선미술출판사	1992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 출판부	동치	1986
조선음악년간, 1986	로재환 외2인	문예출판사	1990
국가미술전람회 화집	조선미술출판사사회편집부	동치	1993
부러진독마늘	김성봉	금성청년출판사	1991
주체적음악연주	김득철	문예출판사	1992
혁명가곡 피마초 총보	문예출판사	문예출판사	1972
가야금 산조.1	정남희	예술교육출판사	1992
조선미술년간, 1991	미술화집편집부	문예출판사	1995
북한의 문화예술 행정제도 연구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	1995
조선의 건축사.1	리화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 의학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언어학 문법집.10	박용순	사회과학출판사	1991
조선말 력사.2	류열	사회과학출판사	1992
중세조선말사전.1	김영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조선말사전	동편찬위원회	학우서방	1986
현대조선말사전 (제2판)	관학백과사전출판사	동치	1981
조선말대사전 V.1~V.2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1992
중조사전	어문강좌편	외국도서출판사	1962
조선학개론	최정후	탐출판사	1989
조선어학사	김병제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3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	박상훈외2명	탐출판사	1989
조선어 어휘론 연구	최관호·문영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단어사전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출판사	1980
조선어문법 1.2	언어학연구소·언어학연구실	동치	1960

